



북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중현·이형숙 부부. 이들 부부는 3년전 홍천에서 베이커리 북카페를 열고 인생 제2막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

역대 연봉 CEO에서 카페주인으로 “10년 후를 고민해 보세요”



남자나이 마흔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 김중현 지음 정신세계 펴냄 | 9천8백원

역대 연봉을 받던 CEO에서 홍천의 베이커리 북카페(피스오브 마인드) 주인으로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연 김중현 씨(58·前 비비안 사장).

그는 26세 때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7세에 결혼을 했고 동시대 사람이 그러하듯이 30여년간을 오로지 '회사형 인간'으로 충실히 살았다. 그래서인지 회사생활은 성공적이었다. 38세 되던 해에 그는 공개상장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흔이 되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 말이 좋아 전문경영인이자 결국은 월급쟁이에 불과한 자신의 신세를 직시하자 '10년 후에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때부터 밤잠조차 오지 않았다. 인정받는 회사 중역 자리도 마흔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마흔 무렵 마침내 그는 결심을 했고, 꿈을 쫓았다. 그리고 그 꿈은 15년 뒤 북카페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자신의 방황과 결단, 그리고 은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김중현

씨의 <남자 나이 마흔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가 신간으로 나왔다. 그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베이커리 북카페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홉 봉우리의 공작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의 카페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마흔 무렵의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년 후'를 걱정하며 자문을 구했다.

그중 IT업계에 19년 종사하다 45세 되던해 사표를 낸 이성열씨가 무척 인상 깊었다. 그는 현역에 취미가 있었던 이씨는 이탈리아로 유학가 현역기를 제작하는 '장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공견한 의지도 다짐겸 김씨의 카페를 찾았다. 물론 김씨는 이씨의 등을 두드리며 쉽지 않은 결단에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2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선택에서 조언을 시작했다.

"마흔은 방황을 할 나이가 아니고 꿈을 쫓아 나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할 좋은 나이이지요"라고 말이다.

마흔에 시작하는 13가지 결심

- Home Sweet Home 따뜻한 가정 만들기
- Heart 일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기
- Human Relation 인연을 살려가며 상생의 삶 살아가기
- Humble & Simple Life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기
- Hand 즐겁게 명성을 노동하기
- Health 건강하기
- Human Depreciation 육체적 정신적 강가생각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 Hope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 활활하고 기도하며 살기
- Hobby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살기
- Habit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습관 갖기
- Honesty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르게 살기
- Hostship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기
-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길 찾기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것이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스스로의 삶을 다시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은이가 주장하는 '마흔에 시작하는 13가지 결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꿈과 계획이 세워졌으면 자신의 몸값 관리를 늘여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창안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인타박을 잘 활용할 것 ▲인맥과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앞으로 10년 목표로 영어에 다시 도전할 것 ▲건강 지도를 그릴 것 ▲튕날 때마다 아내와 노후를 계획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은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은 소박 단순하게 품평'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꼭 하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의 소박하고 단순한 일을 찾아 전심전력을 다해 연구하고 시도하려고 권한다. 만일 경험부족으로 실패를 했어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외에도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하고 인격수양에 나설 것도 40대 이후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독실한 불교 신자인 지은이 부부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운전할 때에도 목경 테이프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내면을 맑은 세계로 이끌고 언행을 일치시키며 사는데 힘이 된다고 털어놓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3 -적은 것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 피에르 상소 지음 | 김주경 옮김 동문선 펴냄 | 7천원

책의 서두에 인용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라는 파스칼의 문장은 이 책의 지은이인 프랑스 철학자 상소가 즐겨 되뇌곤 하던 구절이다. 일찍이 밀란 쿤데라도,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고 간파한 바 있다.

상소 또한 멈추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느림의 미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한가롭게 거닐기, 듣기, 꿈꾸기, 기다리기, 마음의 고향을 떠올리기, 글쓰기, 포도주 마시기, 모데라토 칸타빌레(절도를 가지고 아끼기).

실천 방안들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소한 행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사는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게으름, 굶픔, 무능력으로 치부되던 느림의 지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 시대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효율성과 속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잇고 지낸 느림의 미학

'빠름'은 '더 빠름'을 부르고 급기야 태풍의 눈처럼 인간을 삼켜 버릴 뿐이다. 최대의 속도로 스스로를 몰아가며 정체불명의 열정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대한 지은이의 질타는 아프고 때로 통쾌하다.

그러하여 상소는 이렇게 묻고 있다. 최대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속도가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그래서 행복한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은 속도와 거시기 파생된 일에 끌려 다닌 노예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 '절대로 지칠 줄 모르는',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책에서 느림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두가지로 제시된다. 일단 한가로운 거닐어 볼 것. 아무 생각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라는 의미다. 걷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사색하는 행위는 그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본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상대방에게 몰입함으로써 오히려 삶은 윤택해진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 급하게 대화를 몰아가려는 생각을 접어두고 죽은 시간들과 침묵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킨다.

이러한 경험들은 느림이 개인의 성격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은이는, 느리게 살아 보라는 말은 노스텔지어에 빠져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인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은 없었는가' '어떤 신념을 배반한 일은 없었는가' '언제부터 나는 내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라는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의미이다.

홍희선(강원대 철학과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 만남 멋진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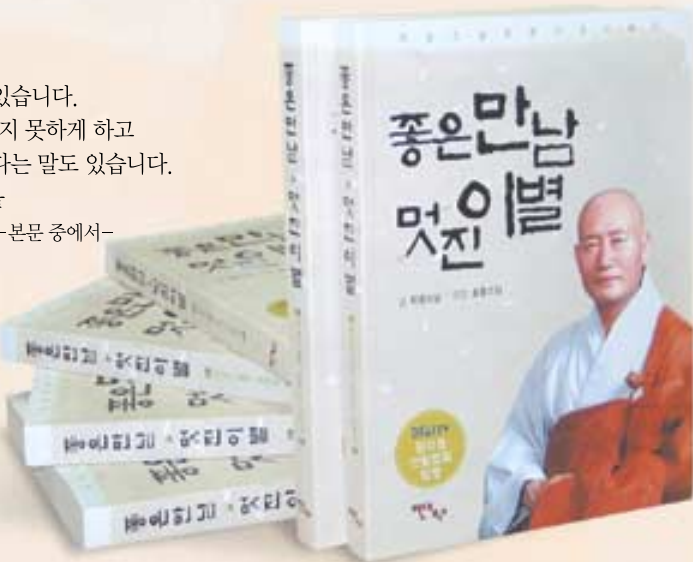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 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심판의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불암사 주지 · 前) 은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생연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 자광스님의 중도개(鍾道歌-개일음의 노래) 출판(근간)

역대 1 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Sale!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서는 가격을 할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십시오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한글로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정명숙)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